

[제15장]

揚子江南(양자강남)을 썬리샤 使者(사자)를 보내신들 七代之王(칠대지왕)을 뉘 마그리잇가  
公州(공주) | 江南(강남)을 저흐샤 子孫(자손)을 가르치신들 九變之局(구변지국)이 사르쁘디리잇가

(진시황이) 양자강 남쪽, 즉 금릉을 꺼리시어 사자를 보내신들 (이미 하늘에서 정한) 칠대의 왕을 누가 막겠습니까.  
(고려 태조가) 공주의 강남을 두려워하시어 그 자손을 가르치신들, 이 나라의 판도가 아홉 번 바뀌는 것이 사람의 뜻이겠습니까.

[제16장]

逃亡(도망)애 命(명)을 미드며 놀애예 일흠 미드니 英主(영주)ᄃ 알퐁 내내 붓그리리  
올모려 님금 오시며 姓(성) 곁히야 員(원)이 오니 오늘날래 내내 웃브리

(수나라의 이밀이) 도망하면서도 자기에게 천명이 있음을 믿으며, 노래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니,  
(뒷날) 영명한 군주, 당 태종 앞에서 내내 부끄러워하리.  
(고려 숙종 때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려 임금이 오시고,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을 골라서 부윤으로 삼으니, 오늘날에 내내 우스우리.